

LG화학, 여수·나주 2300억원 투자

석유화학·전자소재 확장 ... LG그룹 4사 비수도권 1조7000억원 투입

LG전자, LG마이크론, LG이노텍, LG화학 등 LG그룹 4사는 2006년 수도권 외 전국 지방사업장에 총 1조 7000억원의 투자를 검토중이라고 11월4일 발표했다.

4사가 검토중인 2006년 투자는 경북 구미의 디스플레이 분야 8000억원, 충북 청주 및 오창의 디스플레이 및 정보전자 소재 4200억원, 경남 창원 및 울산·온산의 디지털가전 및 산업재 2500억원, 전남 여수와 나주·광주의 석유화학 및 디스플레이 재료 2300억원 등이다.

LG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화시대가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는 물론 산학협력과 사회공헌 활동도 강화키로 했다.

LG는 중점육성사업 분야에서 적극적인 신제품 개발과 선행투자를 통해 시장지위를 확대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.

이를 위해 현재 전국 30여개 지방대학과 협력해 20여개의 공동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과 연구시설 건립, 장학사업 등에 120억원을 지원하는 등 지역대학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.

LG는 지역 협력기업에 대한 투자자금 1000억원 운영 등 자금지원, 우수인력 채용지원, IT구축 지원, 6시그마 컨설팅, 안정적 수요 제공 등 협력기업 6대 지원방안을 확대 적용하는 한편, 신기술 개발 및 부품 국산화 지원을 위해 250억원의 협력펀드를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<화학저널 2005/11/07>